

#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권민지 책임연구원(minji.kwon@bnkfg.com)

최근 10년간 동남권 대출은 2.1배 증가했다. 2008년 6월 142조원에서 2018년 6월 297조원으로 늘어나며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6.6%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며 기업대출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연평균 9.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동남권 기업대출 증가세가 가계대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주력산업의 경기침체로 기업대출은 위축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10년간 동남권 대출 2.1배 증가

동남권 대출은 2008년 6월 142조원에서 2018년 6월 297조원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7.7%의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전국(6.2%) 수준을 상회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744조원에서 1,252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대경권은 78조원에서 171조원으로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충청권은 76조원에서 173조원으로 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호남권은 72조원에서 139조원으로 6.9% 늘어났다.

동남권 대출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비은행금융기관(8.7%)의 증가세가 예금은행(7.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16.8%, 1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기인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등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대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 총 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전국 <sup>1)</sup> | 1,139,274         | 2,081,618           | 6.2        |
| 수도권              | 743,949<br>(65.3) | 1,252,024<br>(60.1) | 5.3        |
| 동남권              | 141,561<br>(12.4) | 296,502<br>(14.2)   | 7.7        |
| 대경권              | 77,932<br>(6.8)   | 171,343<br>(8.2)    | 8.2        |
| 충청권              | 76,218<br>(6.7)   | 173,182<br>(7.8)    | 7.8        |
| 호남권              | 71,703<br>(6.3)   | 139,289<br>(6.7)    | 6.9        |

주 : 1) 전국에는 강원권, 제주권의 대출도 포함

2) ( )내는 전국 대비 비중

3)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예금은행                      | 105,118 | 212,533 | 7.3        |
| 비은행<br>금융기관 <sup>1)</sup> | 36,443  | 83,968  | 8.7        |
| 상호저축<br>은행                | 7,080   | 4,109   | △5.3       |
| 신용협동<br>조합                | 2,008   | 9,525   | 16.8       |
| 상호금융                      | 19,374  | 45,609  | 8.9        |
| 새마을<br>금고                 | 5,449   | 20,890  | 14.4       |

주 : 1)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수출입은행 등의 대출도 포함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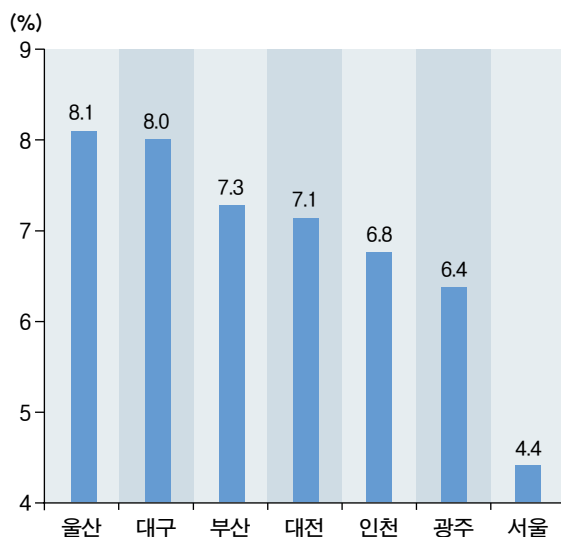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특별/광역시 중 대출 증가율은 울산 1위, 부산 3위 도별 순위에서는 경남이 3위

지난 10년간 특별시 및 광역시 대출은 울산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대출규모는 2008년 6월 19조원에서 2018년 6월 41조원으로 늘어나며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69조원에서 140조원으로 7.3%의 증가세를 보이며 대구(8.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전은 7.1%의 증가율로 4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인천(6.8%), 광주(6.4%), 서울(4.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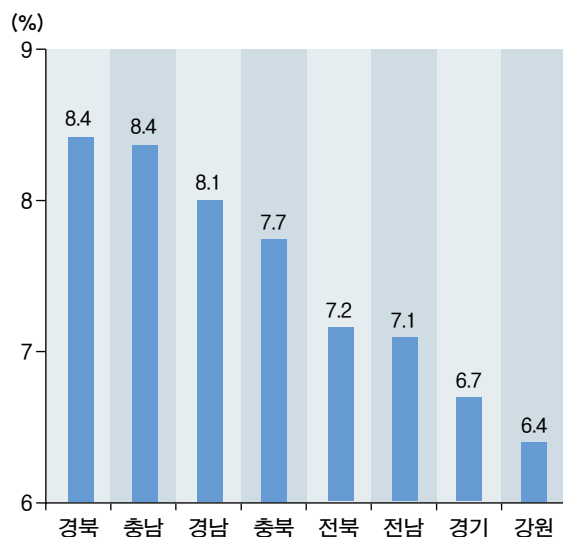
도별 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경남이 8.1%로 경북(8.4%), 충남(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의 대출규모는 같은 기간 53조원에서 116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충북은 7.7%의 증가율을 보이며 4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북(7.2%), 전남(7.1%), 경기(6.7%), 강원(6.4%) 순서의 모습을 보였다.

특별/광역시별 대출 연평균 증감률



주 : 1) 2008.6월 ~ 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도별 대출 연평균 증감률



주 : 1) 2008.6월 ~ 2018.6월 연평균 증감률  
2) 세종시 대출은 충남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 기업대출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6.6% 증가

동남권 기업대출은 2008년 6월~2018년 6월중 83조원에서 157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14.5%로 1.7%p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6.3%, 울산 7.5%, 경남 6.7%로 조사되어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 모두 전국(5.3%)과 수도권(5.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연평균 6.9% 증가하여 비은행예금취급기관<sup>1)</sup>(1.9%)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은 부산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상호금융도 부산 및 경남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업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기업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전국  | 644,320           | 1,082,725         | 5.3        |
| 수도권 | 475,232<br>(73.8) | 789,866<br>(73.0) | 5.2        |
| 동남권 | 82,759<br>(12.8)  | 156,526<br>(14.5) | 6.6        |
| 부산  | 42,032<br>(6.5)   | 77,234<br>(7.1)   | 6.3        |
| 울산  | 9,863<br>(1.5)    | 20,316<br>(1.9)   | 7.5        |
| 경남  | 30,864<br>(4.8)   | 58,977<br>(5.4)   | 6.7        |

주 : 1) ( )내는 전국 기업대출 대비 비중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기업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예금은행                        | 62,858  | 122,289 | 6.9        |
| 비은행예금<br>취급기관 <sup>1)</sup> | 17,898  | 21,616  | 1.9        |
| 상호저축<br>은행                  | 6,263   | 2,734   | △8.0       |
| 신용협동<br>조합                  | 638     | 4,181   | 20.7       |
| 상호금융                        | 5,980   | 10,509  | 5.8        |
| 새마을<br>금고                   | 2,750   | 1,719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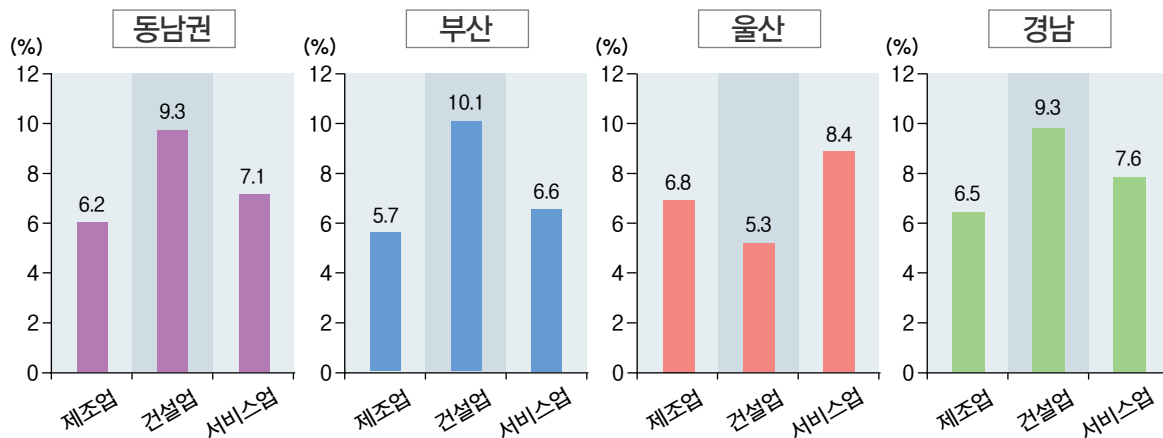
주 :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종금계정, 신탁계정, 수출입은행 등의 대출도 포함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1) 2008년 6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총 대출에서 가계대출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

동남권 기업대출<sup>2)</sup>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7.1%, 제조업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부동산경기 호황과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건설업이 10.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6.6%, 제조업은 5.7%로 조사되었다. 경남 역시 건설업 9.3%, 서비스업 7.6%, 제조업 6.5% 순서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울산에서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8.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6.8%, 건설업 5.3%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의 건설업 증가세가 낮았던 것은 지역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산업별 대출 연평균 증감률



주 : 1)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2) 부동산업은 건설업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2) 동남권 중소기업 대출(예금은행 기준)은 2008~2018년 중 60조원에서 111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6.6%, 울산 5.7%, 경남 6.3%의 증가율 기록

동남권 중소기업 대출<sup>1)</sup>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 증감률 |
|-----|---------|---------|---------|
| 동남권 | 60,000  | 111,390 | 6.4     |
| 부산  | 29,591  | 56,276  | 6.6     |
| 울산  | 7,061   | 12,303  | 5.7     |
| 경남  | 23,348  | 42,811  | 6.3     |

주 : 1) 예금은행 기준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9.1% 증가

동남권 가계대출은 2008년 6월 59조원에서 2018년 6월 140조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며 기업대출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연평균 9.6%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대출규모가 2.5배 늘어났다. 부산(8.7%) 및 울산(8.8%)도 전국(7.3%)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연평균 11.3% 증가하여 예금은행(7.9%)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울산 및 경남에 비해 부산의 대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18.4%, 13.6% 증가했다.

동남권 가계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전국  | 494,954           | 998,893           | 7.3        |
| 수도권 | 268,717<br>(54.3) | 462,158<br>(46.3) | 5.6        |
| 동남권 | 58,803<br>(11.9)  | 139,976<br>(14.0) | 9.1        |
| 부산  | 27,337<br>(5.5)   | 62,824<br>(6.3)   | 8.7        |
| 울산  | 8,853<br>(1.8)    | 20,511<br>(2.1)   | 8.8        |
| 경남  | 22,613<br>(4.6)   | 56,642<br>(5.7)   | 9.6        |

주 : 1) ( )내는 전국 가계대출 대비 비중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가계대출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예금은행                        | 40,258  | 86,015  | 7.9        |
| 비은행예금<br>취급기관 <sup>1)</sup> | 18,545  | 53,961  | 11.3       |
| 상호저축<br>은행                  | 817     | 1,376   | 5.4        |
| 신용협동<br>조합                  | 1,370   | 4,891   | 13.6       |
| 상호금융                        | 13,394  | 32,913  | 9.4        |
| 새마을<br>금고                   | 2,699   | 14,634  | 1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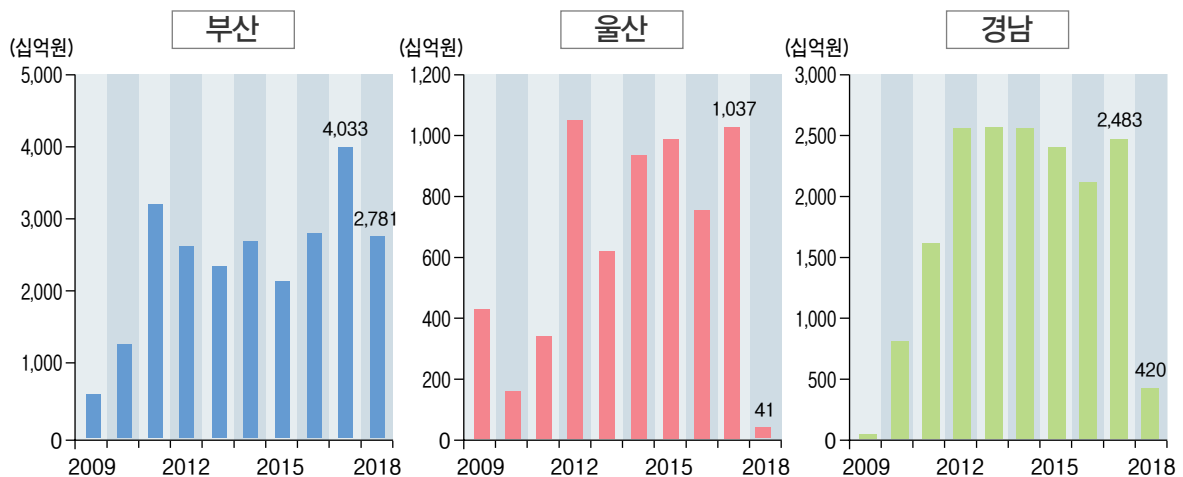
주 :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신탁계정,  
우체국 등의 대출도 포함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주택담보대출<sup>3)</sup>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34조원에서 2018년 6월 83조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같은 기간 10.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이 9.2%, 울산이 8.3% 증가했다.

한편 2017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동남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은 2016년 7월~2017년 6월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늘어났으나 2017년 7월~2018년 6월에는 2조8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울산의 경우 1조원에서 4백억원으로, 경남은 2조5천억원에서 4천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동남권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 호황에 기인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



주 : 1) 기간중 증감액

2) 2008.6월~2018.6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3) 동남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월 57.5%에서 2018년 6월 59.1%로 확대

| 동남권 주택담보대출 |               |               | (십억원, %) |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 증감률  |
| 동남권        | 33,820 (57.5) | 82,690 (59.1) | 9.4      |
| 부산         | 17,503 (64.0) | 42,318 (67.4) | 9.2      |
| 울산         | 5,212 (58.9)  | 11,604 (56.6) | 8.3      |
| 경남         | 11,105 (49.1) | 28,769 (50.8) | 10.0     |

주 : 1) ( )내는 해당 지역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은 최근 10년간 1.8배 증가

동남권 예금은 2008년 6월 165조원에서 2018년 6월 301조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증가세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남권 예금 증가세는 전국(7.7%) 및 수도권(8.1%)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비중도 2008년 6월 11.5%에서 2018년 6월 10.0%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및 가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수익률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상회하여 상당 수준의 예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연평균 7.4% 증가하였고 신용협동조합(14.4%), 새마을금고(8.4%), 상호금융(8.2%) 등의 증가율은 예금은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예금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전국  | 1,430,018         | 3,009,362           | 7.7        |
| 수도권 | 939,524<br>(65.7) | 2,051,489<br>(68.2) | 8.1        |
| 동남권 | 164,667<br>(11.5) | 300,946<br>(10.0)   | 6.2        |
| 부산  | 82,402<br>(5.8)   | 150,061<br>(5.0)    | 6.2        |
| 울산  | 21,778<br>(1.5)   | 40,131<br>(1.3)     | 6.3        |
| 경남  | 60,486<br>(4.2)   | 110,754<br>(3.7)    | 6.2        |

주 : 1) ( )내는 전국 총 예금 대비 비중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예금

(십억원, %)

| 구분                          | 2008.6월 | 2018.6월 | 연평균<br>증감률 |
|-----------------------------|---------|---------|------------|
| 예금은행                        | 70,524  | 143,498 | 7.4        |
| 비은행예금<br>취급기관 <sup>1)</sup> | 94,143  | 157,448 | 5.3        |
| 상호저축<br>은행                  | 8,435   | 5,348   | △4.5       |
| 신용협동<br>조합                  | 2,988   | 11,472  | 14.4       |
| 상호금융                        | 25,690  | 56,740  | 8.2        |
| 새마을<br>금고                   | 12,187  | 27,367  | 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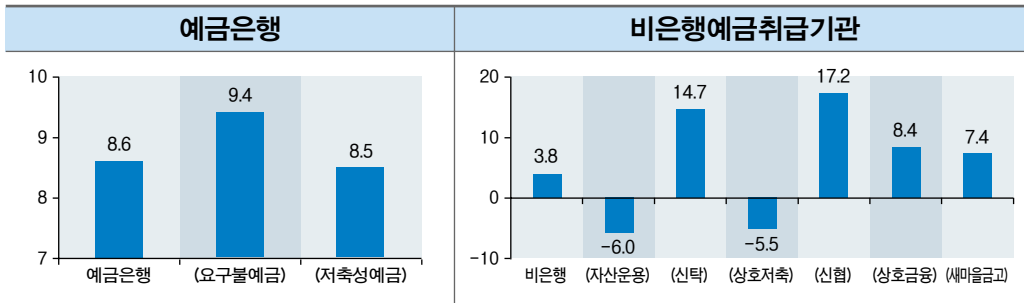
주 :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의 예금도 포함  
2) 2008.6월~2018.6월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4)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및 동남권 오피스, 중대형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지난 10년간(2008~2017년) 평균수익률은 5~6% 수준으로 정기예금(2.9%) 및 회사채(3.8%)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

## 동남권 지역별 예금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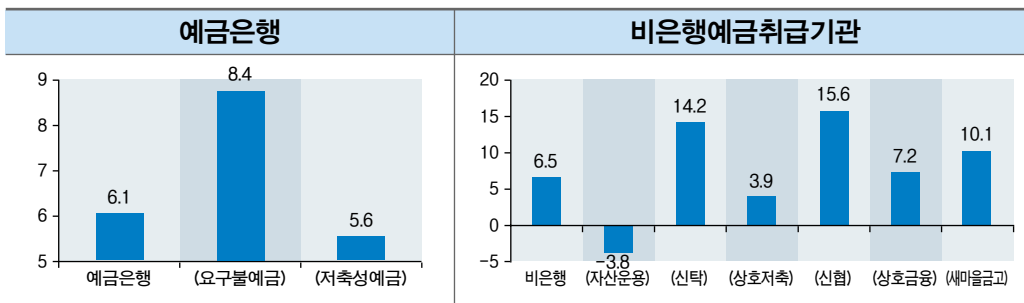
### ■ 부산

- 예금은행 : 8.6% 증가(요구불예금 9.4%, 저축성예금 8.5%)
- 비은행 : 3.8% 증가(신협 17.2%, 신탁 14.7%, 상호금융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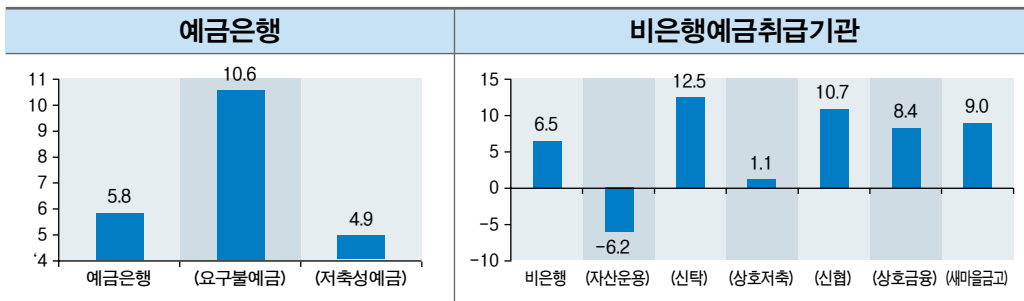
### ■ 울산

- 예금은행 : 6.1% 증가(요구불예금 8.4%, 저축성예금 5.6%)
- 비은행 : 6.5% 증가(신협 15.6%, 신탁 14.2%, 새마을금고 10.1%)



### ■ 경남

- 예금은행 : 5.8% 증가(요구불예금 10.6%, 저축성예금 4.9%)
- 비은행 : 6.5% 증가(신탁 12.5%, 신협 10.7%, 새마을금고 9.0%)



주 : 1) 2008.6월 ~ 2018.6월 연평균 증감률  
2) 예금은행은 원화예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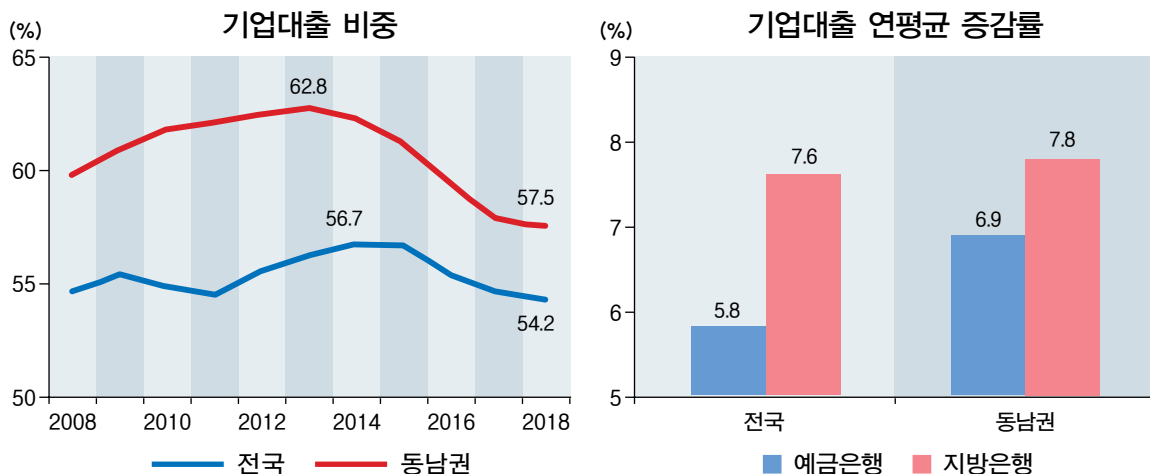
## 지역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되어야

지난 10년간 동남권의 지역금융시장 변화를 보면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가계대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총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월 62.8%까지 상승했으나 2018년 6월 현재 57.5%로 낮아졌다. 이는 지역의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반면 주력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대출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예금은행 평균보다 높은 기업대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경우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7.8%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보다 친화적인 대출행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제도’<sup>5)</sup>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기업대출 비중 및 연평균 증감률



주 : 1) 2008.6월 ~ 2018.6월 연평균 증감률

2) 지방은행은 BNK, DGB, JB금융그룹 소속 은행의 기업대출금(원화) 잔액으로 산정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은행

5)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시장 특징 분석 :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2017.5

한국감정원 (kab.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은행 경남본부, 「최근 경남지역 금융기관 여신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8.7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산업대출의 특징분석 및 시사점」, 2018.6

##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 2014

|    |                               |
|----|-------------------------------|
| 0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
| 06 |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
| 07 |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
| 08 |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
| 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
| 10 |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11 |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

## 2015

|    |                         |
|----|-------------------------|
| 01 |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 02 |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
| 03 |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
| 04 |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
| 05 |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
| 06 |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
| 07 | 최근 기업금융 현황              |
| 08 |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 09 |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
| 10 |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
| 11 |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

## 2016

|    |                               |
|----|-------------------------------|
| 01 |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
| 02 |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
| 03 |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
| 04 |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
| 05 |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
| 06 |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

|    |                                    |
|----|------------------------------------|
| 07 |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
| 08 |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
| 09 |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
| 10 |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
| 11 |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 2017

|    |                            |
|----|----------------------------|
| 01 |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
| 02 |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
| 03 |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
| 04 |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
| 05 |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
| 06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
| 07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
| 08 |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
| 09 |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
| 10 |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
| 11 |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

## 2018

|    |                      |
|----|----------------------|
| 01 |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
| 02 |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
| 03 |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
| 04 |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
| 05 |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
| 06 |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
| 07 |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
| 08 |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
| 09 |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



대한민국 5대 금융그룹



51년 길고 곧은 역사



전국 및 해외로 뻗은 영업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처럼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에 가장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드우드는 100m 이상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한 거목에는 61개의 가지와 200개 이상의 2차 물통이 있고 일관 토양 220kg에 달하며, 잎의 총 무게는 15톤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생명체로 화창한 날씨 속에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랍니다. 그 높은 키를 지탱하기 위해 숲을 이룬 결의 다른 레드우드들과 뿌리를 공유하여 300년간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레드우드의 규모는 수목의 모든 기목을 갱신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레드우드 종에는 수령 2,000년을 넘긴 나무도 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채가 고르며 도장이나 착색 효과가 좋아 무늬목, 목재 제품, 문이나 창틀, 벽판의 제작 등에 쓰고 부식에 강해 목외용 가구 목재로도 쓰이는 등 인간에게 헌신하는 나무입니다.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8-09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9월 28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